

## 예수님을 닮은 교회 1 (데살로니가 전서 1:1-10)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말씀 the word)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1-10)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들의 공통된 바램이 있다면 가장 성경적이면서 온전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초대 교회의 성장을 모델 삼아서 성장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도 하고, 바울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모델로 하여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가 되기도 하며, 안디옥 교회의 선교와 구제를 모델 삼아 봉사 중심의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이것만이 진정한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의 쓰신 교회이지 환경 적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안방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성경 연구에 관련된 자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선교와 봉사의 일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건물과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와 조직화된 성경 공부를 시키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모임을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그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각종 행사와 차별화된 사역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갔다면 이제는 성경의 근본 정신을 찾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향기가 묻어 나아만 시대를 변화시키고,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역의 방법은 변합니다. 그러나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결코 변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그리스도안에 있는 교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1)

목회자나 성도들이 가끔 혼돈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산을 두고 분쟁하기도 하며,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교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나 헌신적인 성도의 물질을 기초로 해서 세워집니다. 그 까닭에 교회가 그들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들의 헌신이 없다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가정 교회 형태의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어찌되었든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교회는 규모 있는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주인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물질로 농락하거나 오염시키는 일들을 단호하게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상당한 부자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을 드렸지만 재산의 일부를 숨겨 뒀으로써 교회를 농락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의해 움직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소유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제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사는 자들에게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규칙에 따라 살 때 상을 주고, 규칙을 어기며 살아갈 때 벌하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는 자들이 규칙(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심판 후에 상을 주시고, 또한 규칙(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된 자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니라"(엡 1:23)

쉬지 않고 기억될 수 있는 자랑거리들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통하여 신앙에 도전을 받으며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눈을 들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처럼 간증은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매주 성도들의 간증 시간을 따로 두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자신의 성공담을 말하는 설명회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증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강과 물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간증의 본래 의미는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과 물질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회의 소외 계층으로 있었고, 핍박의 대상이었으며,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몸은 대부분이 허약했고 청빈과 검소함으로 항상 가난한 삶을 유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됐으며 순수한 교회를 지탱해 오는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간증이 오히려 성도들을 사회적 성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을 동일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열등감을 가중시키며, 자칫 교회를 사회적 성공의 열쇠로 착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농락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되찾고,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억될 수 있는 자랑거리(간증)를 찾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억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함으로써 그들의 영원한 간증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간증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2,3)

#### (1) 믿음의 역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이 단순하게 어떤 불가능한 사실이 기적적으로 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문제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간증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말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 아돌람 굴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기도함으로 훌륭한 병사도 얻고, 훗날 왕이 되는 기초를 마련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매사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을 통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바라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 2:22)

그리스도인이 자랑하고 간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였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았더니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만한 내용을 구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수단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삶이 변하는 역사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물질의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모두 교회에 바치고 자신은 헐벗고 굶주리며, 죽음의 사역을 위해 뛰어들어감으로 믿음의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성공과 물질의 부요함 속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니라"(빌 3:18-21)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즉 믿음의 삶에 역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배만을 생각하고,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는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개척해 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2)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말 역시 믿음과 더불어 가장 오해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가 좋은 감정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고, 마음을 나누는 것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 조명해 보는 사랑은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죽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 16:25).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의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자신의 자존심과 배경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배경을 쓸모 없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삶의 모양이 없이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 장의 사랑의 모습은 바로 완전한 자기 포기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수고가 지속되었을 때 영혼 구원이라는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무수히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사랑의 힘에 의해서였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서 도망할 수 있었음에도 간수의 목숨과 영혼 구원을 위해 도망하지 않았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낮아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빌 3:4-9).

## (3) 소망의 인내

성도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에 대하여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환란과 어려움을 당해 왔다는 점입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어려움을 당할까? 저는 감히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이 땅의 일들에 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정직할 것이며, 성실할 것이며, 비진리와 타협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과 요행과 비진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이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방송과 언론을 통해 보면 각종 모함과 술수를 통해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악당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 변호를 하려던 자마저 모함과 술수에 가담하는 경우를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어느 곳 하나도 진실한 자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힘이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할 줄 알면서도, 소외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견디며,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도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하고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늘은 소망 삼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환하게 웃으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랑거리(간증)가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야말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육신의 안녕과 평안이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치를 부끄러워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을 닮은 교회 2 (데살로니가 전서 1:1-10)**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1-10)

한 세기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랄 것도 없이 더욱 더 근신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깨어 기도하며 재림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 갈 것이며, 훗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감수해야 할 신앙적 도전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4)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수억 명에 이르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에 유수한 민족들이 있지만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유대인을 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우수성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들 민족을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하나님이 쓰시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택하셨던 것은 우수성이나 가능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오직 그들의 수가 적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신 7:7)

예수님께서도 산상 설교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매우 단순한 내용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을 취한 이는 매우 적습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비록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자신의 육신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나가는 모습은 개인주의, 기복 신앙에 젖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은 진정 구원받았노라고 주장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택함을 입은 교회가 되겠다고 노력해서 택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눈으로 볼 때도 사랑 받으며 택함을 입은 교회로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사실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리므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써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복음이 함께 하는 교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5)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음은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나 듣고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아는 데서 멈춰 버린다면 그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참 복음은 반드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동반합니다. 즉 복음은 마음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어떤 이는 불행하게도 복음을 아는 것과 삶을 분리하여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전치 못한(덕스럽지 못한)생활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구원시킬 능력 또한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통하여 복음을 가장한 능력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율법주의'신앙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의 신앙은 절대로 같은 분량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있는 복음(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 12:3)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물질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되며, 마술사 시몬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물질로 사려는 시도조차 해서도 안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안 뒤 세상의 명예, 권세, 지식, 물질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부자였던 바나바도 복음을 안 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준 뒤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왕성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자리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넘겨주고 복음을 전하다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마치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교단을 만들고 회장을 뽑고, 신문 지면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존재가 조금 위협을 받고 따돌림의 대상이 되면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봐서는 복음이 없는 거짓 전도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전도자들의 틈에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가장한 거짓 교회 속에서 서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속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는지, 성령이 과연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삶을 변화시켜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는 교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6)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아프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니며 분주하지만 병이 나은 후 아이를 바라보면 한결 성숙해진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장은 동일한 원리 속에서 자라 갑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이 성숙한 신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사역이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은 결코 자리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희생과 순교의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서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의 현실은 '환난'이라는 말을 거의 잊은 듯 합니다. 이미 교회는 사회적으로는 영향력 있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고 목회자는 대부분 지역의 유지들이며, 몇몇의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신학을 하겠다는 목회자 후보생이 넘쳐서 이제는 성적순으로 후보자를 선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5-6 명 정도의 목회자 후보생을 두고 성경을 가르치며, 전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전도 여행을 하며, 산에 올라가 손을 잡고 밤을 세워 기도하던 때는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핍박이나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마다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는 십자가 불빛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날은 머지 않아 닥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갈 4:29)

기복 신앙, 자유주의 신학, 율법주의 사상, 인본주의 등으로 무장한 거짓 교회들이 무차별적으로 세상을 공략해서 그들은 세상 속에 정통 복음주의 교회로 가장하여 세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선 순수한 복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계락을 드러낼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백성들은 거짓 교회의 편이 되어 핍박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브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후 11:3,4)

백성들은 달콤한 거짓 전도자의 말에 현혹될 가능성이 더욱 많습니다. 그들이 미혹됨에 그치지 않고 핍박자로 변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깨어 있도록 요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교회 안으로 거짓 진리를 유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형태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를 핍박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단의 계략이 이제는 거짓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교회 내에서 거짓 영, 거짓 진리를 찾아내어 구별하고, 장차 다가올 환난에 대비해 가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7)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주목해서 볼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선행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각종 구제 사업, 봉사 활동, 사회 사업 등이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의 각종 단체의 구성 주체가 교회로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노약자 시설, 병원, 심지어 학교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방면에 걸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본래의 취지를 모두 잃어 간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어느덧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 사업의 형태를 갖춘 육체의 모습만을 남기게 되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체로 서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3)

결국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는 교회의 결말은 언제나 육체로 마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교회는 세상에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과 더불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극히 칭찬하고 주변 교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데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살전 4:9)

바울은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기초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온 지역으로 확산되어 믿는 이들로 하여금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장과 더불어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교회간에도 이미 경쟁 체제에서 차별화 된 사역으로 상대 교회를 견제하는 일종의 기업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형제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거짓 진리, 거짓 영, 거짓 선지자들 즉 누룩을 제거하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무장하고 교제한다면 온전한 교회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 사단의 교묘한 침투를 염두 해 두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대적해 나간다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0-17)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의 삶을 추구해 가고 육체의 일들과 타협하지 않으며 교회에 들어온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복음이 함께 하며,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더욱 구별된 삶을 살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의 온전한 교회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 **예수님을 닮은 교회 3 (데살로니가전서 1:1-10)**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시니라"(살전 1:1-10)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 칭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진리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자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담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여자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헬라어로 '예수스(예수)'라는 단어가 남성, '에클레시아(교회)'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기록되어진 것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한때 일부 무교회 주의자들에 의해 교회의 존재가 위협을 받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으로부터 파생된 오염된 교회관, 즉 교회는 '성전'이라 하여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신성한 것으로서 보존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까닭에 죄에 대한 모든 고백과 경배와 찬양 은혜와 축복이 성전된 건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일부 거짓 전도자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물을 통해 멸망을 피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바벨탑'이었습니다(창 11:1-9).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고, 그들 백성을 흠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 억의 돈을 들여서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짓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마치 웅장한 건물이 자신들의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 일로 인해 많은 실족자들을 낳게 되고, 그 후에는 하나의 기업화된 교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교묘한 전술에 완전히 농락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만물보다 귀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고전 3:16,17)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냅니다. 건물마다 세워진 십자가 불빛이 저마다 자신들의 교회만이 참교회인 것처럼 높은 곳에서 비추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 안에서 교제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여진 무리들은 주어진 사명을 안고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8)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비만 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으레히 따라 다니는 말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서툰 공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패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구기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격투기 종목에서는 공격을 많이 한 선수에게 '우세승'이라는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 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매우 수비적인 자세로 세상에 대항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립되려고 하고 있으며, 실체를 숨긴 채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분명한 거짓 복음, 거짓 진리 앞에서도 그들의 거짓 됨을 나무라지 못합니다. 이 후에 당할 보복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단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멸망 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덤벼듭니다. 이러한 사단과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0-12)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교회가 사단의 활동을 보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단의 교묘함에 대적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총이나 칼도 아니고, 맨 몸으로 뛰어들어 쫓거나 투쟁이 아닌 믿음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로 쓰지 않고 '믿음의 소문'이라고 언급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분명한 복음 위에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간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에 영접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교회에 속한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과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쓰러지지 않을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물량 주의에 치우쳐 좋은 건물, 많은 회중의 숫자에 연연해 있는 동안 사단은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여 수없이 많은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순수한 복음 적인 교회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믿음의 소문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9)

우상과의 싸움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되어 온 싸움입니다. 특히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바알 숭배 사상은 수십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쉬운 예로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축제일이라고 하는 성탄절(크리스마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 월 25 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태양신(바알)의 축제일입니다. 1 년 중 해가 가장 짧다가 길어지는 12 월 25 일 새벽을 기해서 태양의 탄생일로 정하고 오래 전부터 제사를 드려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모아 들였고, 4 세기에 이르러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한 그들은 자신들의 기존 종교와 혼합하여 '로마 가톨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그 세력을 키워 갖고 태양신(바알)의 축제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Easter 여신의 축제일을 부활절로 둔갑시키며 교묘히 복음을 변질시켜 왔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재건을 꿈꾸며 교회 당 위에 종탑을 세웠고, 그들만이 참교회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만들었고, 예수님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강조해 가는 등 복음을 난도질하고 우상을 만들어 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일련의 우상 숭배 작업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의미도 모른 채 지키고 있으며, 사도 신경을 암송하며 '거룩한 공회(Holy Catholic church)를 믿사오며'를 매주 마다 반복하고 있고, 교회당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종교 대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 정열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작업을 끝낸 후에는 참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교회로 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항하며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우상의 세력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결코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계 18:4,5)

각종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결코 서툰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다가 오며, 전통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키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에 어떠한 진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며, 그 어떤 길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근신하며, 경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시니라"(10)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산 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소망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었으며, 신부는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것은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만큼 오해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언한답시고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제시한다든지, 재림과 동시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깨끗한 신부(그리스도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 산이나 혹은 한적한 곳에 머물러 준비해야 한다든지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을 흔치 않게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때나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1-3)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예상과 추측에 근거하여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홀연히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들어올리시고 밖에 있는 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바울이 재림에 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살전 5:11)

우리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산에 오르거나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소에 하던 생활 그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삶의 모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결코 시대적인 흐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비록 전하는 방법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 가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순결하게 단장된 신부로서 오늘을 준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는 모든 교회의 소망하는 바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을 본받아서 혼탁한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의 모델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온 성도가 힘을 다해 이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